

▶ 가족·아동

농촌노인의 건강증진행위 관련요인

- 신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 정 화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전임강사)

김 경 신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김 경 명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경로모형을 통해 농촌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객관적 건강상태(농부증)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농촌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매우 적고, 방법론적 한계 등으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자료는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분포한 110개의 농촌마을 만 60세 이상 노인 881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Spss windows 1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 분석, 경로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노인의 건강수준을 살펴보면, 농촌노인들은 63% 정도가 자신의 건강을 '좋지 않은 편'으로 지각하고 있다. 객관적인 건강지표로 측정된 농부증 역시 3점 만점에 평균 1.83점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농촌노인이 요통, 관절통 등 농부의 직업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어 농촌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유지 및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행해지는 개인의 건강적인 행위인 건강증진행위는 1점 만점에 0.31점으로 나타나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농촌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잘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농촌노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자 하는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농부증($\beta=.221$)은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농촌노인은 농부증 증상 정도가 심할수록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 경제적 형편, 교육수준, 연령은 농부증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농촌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모델의 인과효과를 분해한 결과, 건강증진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수준, 경제적 형편, 농부증이었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형편이었다. 전체인과효과가 가장 큰 변수는 농부증($\beta=.221$)으로, 건강악화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적극적인 건강증진행동에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결과, 농촌노인은 신체적 건강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건강관련 서비스의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농촌노인이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직업성질환과 만성질환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 농민 건강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